

구시마 성 혼마루터

이 장소는 구시마 성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혼마루)이며 오무라 가문 번주의 단층 저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시마 성에는 중앙 천수각은 없었지만, 오무라 만과 사실상 구시마 성의 부지를 섬처럼 만든 안쪽과 바깥쪽 해자 시스템(구조)을 통해 성을 효과적으로 지켰습니다.

구시마 성은 1599년에 오무라번 초대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 번주인 오무라 요시아키(1569~1616)의 명으로 지어졌습니다. 관백(關白, 천황의 보좌관)이자 훗날 일본의 사실상 통치자가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로부터 요시아키는 1587년에 있었던 히데요시의 규슈 정벌을 지원했다고 하여 작위를 받았습니다.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요시아키는 라이벌인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 간의 권력 향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오무라 가문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요시아키는 오무라 만에 구시마 성을 건설할 것을 명했고, 성이 완공되자 일족을 내륙의 작은 성에서 더 요새화된 이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구시마 성 혼마루에는 히로마(연회장)를 가진 건물 외에도 번주가 거주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오무라 신사가 있습니다.

대정봉환(大政奉還, 막부가 정권을 조정에게 반환한 일)이 이루어진 1867년에 도쿠가와 막부는 종언을 맞았습니다. 지방의 번주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국가의 근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메이지 신정부는 많은 성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시마 성의 건물 대부분이 철거되었지만, 오무라 가문은 구시마 성 안쪽의 한구석에 세워진 작은 거처인 가지야마 저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오무라 가문 마지막 번주인 오무라 스미히로(1830~1882)는 구시마 성에서 태어났으나 생애의 대부분을 훗날 도쿄가 되는 에도에서 보냈습니다. 오무라 신사는 오무라 가문의 조상들을 대대로 모시기 위해 1884년에 내륙 부지에서 구시마 성의 안으로 이전되었습니다.